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65호 현대불교  
2008년 2월 6일(음력 12월 30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 푸르게 살 수 있으려면

**문** 스님께서는 늘 내 안의 심봉을 붙들고서 푸르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워진 점이 많고 가족과 조상의 인연들이 늘 놓여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푸르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요?

**답**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정초가 되면 촛불 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형식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탁만 쳤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제각기 마음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자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삼천 년 전 부처님께서 미리 미리 진리에 관한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50% 물질계에만 정신이 팔려서 허덕거릴 뿐이지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해서 돌아간다는 자체를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근본이 몸 형상시켜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모르다면, 정신 차려서 생활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지경이 많이 닥치리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말입니다.

해마다 마음의 불을 밝히는 촛불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알아 두어야 할 두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참나를 탄생시켜서 상봉하는 겁니다. 현재의 내가 과거에 살던 참나를 발견해서 상봉을 한다면 자유자재권을 얻어서 12대 공손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에게 다 응신으로서 나뉘면서 어느 것 하나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또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그런 모든 진리에 관한 섭류를 터득해서 바로 자유권을 갖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살게 되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차원에 따라서 과거도 현실이고 미래도 현실이니 영원한 오늘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전기가 가설돼 있듯이 마음의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령들이 잔뜩 들어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니 그대로 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려서 나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에 생각하면서 뒤고 뛰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부처님 법이요, 우리들 법이 부처님 법이요, 부처님 법이 우리 법이요, 우리네들 육신이 부처님의 형상이요, 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대무변하고 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양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밝히면 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밝혀야만 되는가. 자기가 나온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안의 섭류, 정신계를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육신의 불을 밝히고 마음공부를 하신다면, 생활을 재료로 삼아서 항상 할 수 있다면 바로 아래 자손들은 마음이 화해서 바뀌고, 바뀌면서 화하게 됩니다. 그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의식들이, 업적으로 남은 의식들이 다 착해지고 밝아지고 보살로 화해서, 말로 허거나 욕하고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밝아짐으로써 일이 풀리고 돌아가신 부모의 영령들도 밝아져서 스스로 천도가 되죠. 자기와 더불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더하고 탈함도 없어요. 육근으로부터 육식이 다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더하고 탈함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의식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뱅뱅 도는가 하면 길에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도 산 사람인 양 생각을 하게 되고, 강에 가도 빠져 죽을까 봐 감을 못 건너가게 되고, 불바퀴를 넘어서려 해도 타 죽을까 봐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일체 만물을 보고 살았던 것이 있어서, 무시무시한 뱀이나 귀신들이나 무서운 짐승들이나 그런 생령들이 다 살아 있는 양 그려져 있는 그 환상 속을 실제 자기가 몸이 있는 줄 알고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물속의 생령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 인간도 공기주머니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자유로이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유로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벗어나야 자유권을 얻고 자유권을 얻어야 세세생생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일체 만물만생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부처가 되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법신이 되고, 움직여졌을 때는 법신이 돼서 응신으로 화해서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이 다 원해도 거기에 응해서 돌이 아니게 견져진다든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만 공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머리카락처럼 인생살이가 벌어진 겁니다. 인생은 짧기도 하며 길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망 짙어지고 나왔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식들이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헤아릴 수 없이 있습니다. 세포에 있는 그 의식들이 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빈틈 없이 의식적으로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짚어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한철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모두 자기네 집에서 결망 짙어지고 놀러 나와서 남들하고 더불어 같이 놀다가 해가 되면 다 자기 집으로 원점으로 돌아오듯이 지금 인생살이가 그렇다 이겁니다. 짧은 기간에 결망 짙어지고 나와서 그 다섯 가지 요소가, 악업 선업이 다 합해서 차례차례로 차근차근히 나오니까, 그 나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해야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게 하는 길은 단 하나 있습니다. 나왔던 그 자리에 다시 놓는 겁니다.

차례차례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나오는 자리에다가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해야잖아.' 하고 되놓는 겁니다. '네 속에서 나온 거니까 네 속에서 해결을 해야지.' 하고 깊은 마음속에서 밝아집니다. 뿌리이기도 하고, 이틀 해서 주인공이라고 하죠. 일체 만물의 나무들도 잎새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가 전부 뿌리에 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끊어지면 그 나무들이 다 죽듯이 인간도 영혼의 뿌리인 자기 개개인에게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항상 남의 형상을 믿고 형상을 찾고, 이름을 믿고 이름을 찾고, 허공을 믿고 허공을 찾고 이런다면 자기의 그 멧있는 뿌리는 언제 나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쪽 나무가 저쪽 나무를 믿고 에너지를 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빌어도 에너지는 이쪽 나무로 오지 않습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예

기 나무로 올라가서 그 나무는 푸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촛불재를 하면서, 마음으로 항상 불을 밝히면서 생활 속에서 닦치는 일체를 재료로 삼고 행주좌와로써 참선을 하실 수 있다면 더불어 다 밝아지게 되니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나를 발견하고 나사의 공부 과정

**문** 주인공 하나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다 보니 생시나 꿈에서나 나 아닌 나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수련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답** 예전에 어떤 귀한 선종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부처는 어느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네가 부처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스님이 하는 말이 '보림을 어떻게 하오리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그것을 관찰하라.' 하셨습니다. 눈병이 나면 허공에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니 이것을 잘 관찰하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봤다고 했을 때에 그 때가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오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이렇게 육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말고 내 이 여기에, 안으로 굴러서 내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상대방의 대상이 없으면 습이 일어날 수도 없고 생각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주칠 수가 없으니, 생각이 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다 할지라도 보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굴러서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사랑을 둘러봐도 내가 체험하고 돌아가면서 그 자리에다 다시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좀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본단 말을 바깥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똥을 누고 가더라. 너는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너는 똥을 먹더라.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너는 짐을 자고 있더라.' 이런다면 참나 '아니,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뜻으로써 그렇게 보게 했더니 요걸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해!' 이런 것입니다.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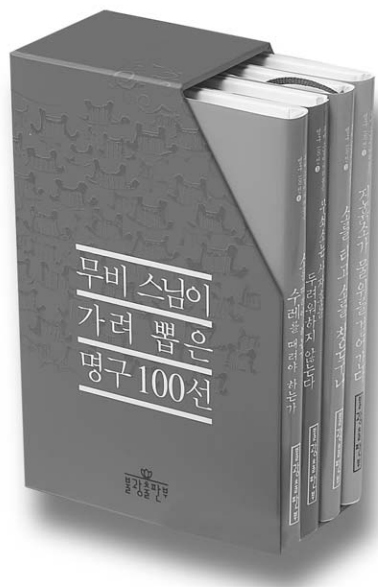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YES24 5주, 교보문고 3주, 불교부문 주간베스트 1위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무비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  
4권 1세트

불교의 핵심을 가르치는 명구, 명쾌한 해설  
한 편 한 편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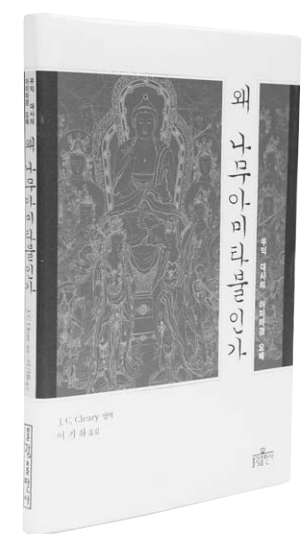


- 제1권 • 진후소가 물 위를 걸어간다
- 제2권 •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 제3권 • 무쇠소는 사자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제4권 •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 4×6판 양장본 | 각 권 값 9,000원  
● 4×6판 양장본 | 4권 1세트 | 값 35,000원

짧은 한마디 명구, 그보다 더 깊은 무비스님의 해설을 통해 마음이 밝아지고 삶의 지혜가 열린다. 행복 지킴이, 인생 성공 지침서라 할 만한 이 책을 거울 삼아 어지러운 마음을 비추고, 그 중에 특히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어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고 새김질해보라. 어느새 지혜와 해탈, 대자유, 대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다.

흔들리는 우리 시대,  
나무아미타불로  
바로 지금  
정도를 꽃피우다



왜 나무아미타불인가  
영인 대사의 아미타경 오해

J. C. Cleary 영역 | 이기화 옮김  
산책판 양장본·200쪽·값 12,000원

“화엄경의 심오한 법장과 법화경의 비밀한 골수와 모든 부처님의 심오와 보살행의 지남침이 모두 아미타경에 있다.” —우익지족 대사

“우리 대사의 ‘아미타경오해’는 사리와 이치가 지극하고 미묘하고 또 정확해서 옛 부처님들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를 능가할 주석을 달 수 없을 것이다.” —인광 대사

우리 대사의 『아미타경오해』는 미국의 불교학자 J.C. Cleary 박사가 영역,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토불교란 무엇인가', '정토불교의 주요한 특징' 등 정토불교의 가르침과 정토수행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 불교용어를 해설하고 내용과 관련된 일화를 설명해 주는 편집자 주를 읽어야 할 때 정토불교 개론서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한국불교의 저변을 확대하고 힘찬 생명력을 제공, 정토불교를 꽃피우고 한국불교를 발전시키는 데에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